

재외도민과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방향과 과제

Overseas Residents and A Global Jejunian Network: Its Directions and Tasks

고 경 민*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시도: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
| II. 이론적 논의 : 재외도민과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 V.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방향 |
| III. 제주의 재외도민 현황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 | VI. 맺음말: 몇 가지 과제
(참고문헌) |

<국문 초록>

제주는 출향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대의식과 유대관계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지방보다 재외도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재외제주도민은 제주를 '물'과 '육지'뿐만 아니라 '해외'로 까지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재외제주도민과 제주의 유대와 연계, 즉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도민의 개념과 재외도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개념적 틀을 제시했다. 이어서 재외 제주도민의 현황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상황에서 왜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의 한 시도로써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추진 사례를 검토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

* 제주대학교

트위크' 구축의 방향으로 첫째, 정체성의 기획을 통한 제주인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 둘째, 네트워크간 연계 및 상호작용과 사이버 네트워크의 구축 셋째,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로서 상호 이익을 제시했고, 마지막에는 결론에 대신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어 : 재외도민, 디아스포라,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제상대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I. 머리말

1997년 한국 정부는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정착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2006; 재외동포정책위원회, 2009). 이처럼 재외동포는 국가적 수준에서 규정된 개념이지만, 지방 수준(local level)에서는 통상 '재외도민'으로 지칭된다. 다른 어떤 지방보다 재외도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곳이 제주이다. 아마도 제주는 출향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대의식과 유대관계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일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재외제주도민은 제주를 '뭍'과 '육지'뿐만 아니라 '해외'로 까지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지방은 중앙의 수족 역할을 하는 말단 조직이 아니다. 지방 모두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행정과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도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국외 투자도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지방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지방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가는 지방 내부 역량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주요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새로운 역동성 창출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주에서도 재외도민의 가치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도민과 제주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제주도민의 권익신장을 통한 도내 및 재외도민의 상생적(win-win)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재외제주도민과 제주의 유대와 연계, 즉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외도민의 개념과 재외도민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개념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

서 재외 제주도민의 현황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상황에서 왜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의 한 시도로서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추진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결론에 대신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 재외도민과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1. 재외도민의 개념

재외한인, 해외한인, 재외동포, 해외교포 등으로 지칭되는 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emigrants)이 700만 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과 같이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자들(immigrants)이 급증하면서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국가간 이동은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로, 그리고 한 국가 내의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은 국내이주(internal migration)로 구분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일반적으로 국내이주에 비해 국제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제주는 국내이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초가 되는 것이 ‘재외도민’이라는 독특한 개념의 사용인데, 여기에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재외제주도민을 크게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협회를 두고 있다. 이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내륙으로부터 격리된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재외도민에 대한 보편적 개념 정의는 없지만, 기존의 몇몇 선행 논의들을 참고하면 그 개괄적인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연구는 ‘제주인’ 개념을 6개의 범주, 즉 ① 본적지가 제주도이고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원 도민, ② 본적지가 제주도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도민, ③ 타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 출신 제주인, ④ 교포 2·3세를 비롯한 제주인의 자녀, ⑤ 제주인의 배우자, ⑥ 제주도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에 이바지한 명예도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장원석 외 2000: 5). 또 재일 제주인을 연구한 고광명·진관훈(2006: 148-181)은 본적지가 제주이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2,

3세 등),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제일 제주인으로 본다. 이러한 범주 규정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거주 한민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재외동포재단법¹⁾에 규정된 재외동포의 범주와 일치한다. 김현철은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개념을 원용하여 ‘해외제주인’ 개념을 국적을 불문하고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와 3세 등 외국에 거주하는 제주인 모두로 정의한다(김현철, 2008a: 61).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재외제주도민은 본적지가 제주도지만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도민과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본적지가 제주도인 사람들과 그 배우자 및 후손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외제주도민의 정의는 제주인을 “보다 개방적이고 전략적으로 설정”(장원석 외, 2000: 6)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 디아스포라 시각에서 본 재외도민의 가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이주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디아스포라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대외정책 또는 재외동포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디아스포라 이론은 주로 국제이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내 재외동포, 즉 국내이주까지 포괄하여 논의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재외동포, 특히 재외제주도민의 전략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이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팔레스타인 외부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대인의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던 유대인 및 그들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이산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산의 땅’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개념은 공통된 민족적 기원이나 삶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산(離散)과 관련된다. 그러나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망명자 공동체, 소수민족 공동체, 초국가 민족공동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정성호, 2008: 107; 윤인진, 2004: 5; Choi, 2003: 10).

최근 들어 디아스포라는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대규모의 인구이동과 탈영토화된 초국가적 공동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내지는 초국가주의 현상의 심화와 함께 중국, 이스라엘, 인도 디아스포라가 모국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는 더 이상 모국을 떠나 유랑하거나 방랑하는 이산민이 아니

1)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

라 거주국에서의 사회정치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모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용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정성호, 2008: 108). 셰퍼(Gabriel Sheffer)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는 공동의 조상, 동일한 혈통, 모국과 연결된 집단적인 역사, 공통의 문화적·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면서(장원석 역, 2008: 30)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민족적인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전략적 가치가 최근 들어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디아스포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시장에서 모국의 경제적 거래의 촉진자,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 증가와 네트워크의 발전, 다문화다종족다언어적 글로벌 도시의 출현과 이주노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면적인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정체성의 탈영토화 등을 들 수 있다(Cohen, 1997: 157). 그에 따라 디아스포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국과 거주국의 정치경제에, 그리고 글로벌한 수준에서는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세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영향력 확대로 각국은 각종 투자 유인책을 통해 이들이 가진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는 모국과의 관계에서 혁신가이자 투자자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표준에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모국의 정책혁신을 추동하고, 또 초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모국에 투자함으로써 디아스포라와 모국의 상승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모국의 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1990년대 말에 이르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상(韓商)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고, 뒤늦게나마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의 구축이 제기되었다(재외동포재단 2010).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볼 때, 국내 재외도민을 포괄하는 제주의 재외도민은 제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며, 이들을 제주와 연계하여 하나로 묶는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와 재외도민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상승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개념적 틀

국가 차원의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에 비견될 수 있는 제주 차원의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핵심 키워드, 즉 정체성(identity), 네트워크(network), 이익(interest)이 상호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제주인으로서의 소속감

또는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재외도민들과 도내 제주인들을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제주와 재외도민들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호혜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정체성’은 글로벌 공동체가 왜 제주라는 지역을 단위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지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이란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및 일체감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집단적 정체성은 민족, 인종, 국가, 종교, 지역, 계급 등의 차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제주 정체성은 지역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제주를 모태로 형성되고 발전하고 변화해온 ‘지역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언어와 민속 및 문화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김향원, 1998). 따라서 제주의 정체성은 제주지역 주민들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제주인의 고유한 자질이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 정체성은 재외도민을 제주와 연계시키는 보이지 않는 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는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조직화의 원리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연결망을 의미한다.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긴요한 수단이 되며, 여기서 분산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재외동포 단체들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주인 공동체에서 네트워킹의 핵심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허브는 국내외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재외도민협의회가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 개념은 네트워크라는 관계망의 공간적 개념, 즉 구조적 측면과 함께 네트워킹이라는 관계의 형성, 즉 행위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의 ‘구성요건’으로서 각 단위들의 상호작용을 위한 연결망이나 관계망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공동체 내부의 행위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 같은 ‘행위요건’이 충족될 때 글로벌 민족 공동체는 비로소 네트워크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민족 또는 제주라는 출향지역의 요소가 가미되어 민족적 또는 지역적 정체성을 갖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국외 및 국내외 재외도민 상호간, 그리고 이들 재외도민과 제주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위 주체들 간의 긴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연대활동을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 개념은 글로벌 제주 공동체가 구축됨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적 결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통념적으로 재외동포나 재외도민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기대효과는 모국 또는 출향지역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기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 글로벌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도민을 제주지역에 대한 일방적 기여 주체라는 과거의 통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재외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주 지역의 역할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

다. 물론 제주 글로벌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이익이 경제적인 것임에는 틀림없겠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제주를 떠나 타지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도민들과 그들의 2세, 3세들의 제주와의 동질감과 소속감, 자긍심 등과 같은 다양한 연대적이며 비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인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글은 ‘글로벌 제주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제주에서 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단초적 사례로서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시론적 차원에서 ‘정체성-네트워크-이익’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이른바 ‘글로벌 제주 공동체’ 구축의 개념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Ⅲ. 제주의 재외도민 현황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

1. 재외제주도민 현황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4,887만 5,000 명이고 제주도 인구는 54만 7,000명으로 1.1%에 불과하다.²⁾ 그러나 2000년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말 현재 제주를 ‘본적’(本籍)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주시 25만 명, 서귀포시 13만 명, 북제주군 42만 명, 남제주군 24만 명으로, 총 10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장원석 외, 2000: 1). 따라서 재외도민까지 합하면 제주인은 100만 명을 상회하며, 이는 전국 인구의 2%를 넘는 수치이다. 현재 거주 인구 면에서 ‘전국 1%’의 한계에 갇혀 있는 제주에게 재외도민은 그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1〉은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집계한 재외제주도민 현황을 보여주는데, 국내외 각 지역별로 도민회가 결성되어 있고 이들의 연합기구로서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협의회’도 결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재외 60만 제주인의 구심체로서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각종교류를 촉진하여 제주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³⁾

2) 통계청 홈페이지의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참조.

3)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소개’(http://people.jeu.go.kr/contents/index.php?mid=0105) 참조.

- 재외 60만 제주인의 친목과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 도민회간의 상호교류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
- 기타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1〉 재외제주도민 현황

지역		협회명	창립년도	회원수	
국내	서울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55	250,000	
	부산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46	220,000	
	대구	대구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70	400	
	인천	인천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46	6,000	
	울산	울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70	30,000	
	대전	대전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40	400	
	경북	경북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70	400	
	경남	경남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82	1,600	
	서부경남	서부경남제주도민연합회	1989	5,000	
	춘천	춘천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66	90	
	안산	안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88	2,000	
	영북	영북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97	500	
	수원	수원제주특별자치도민회	2001	130	
	군포	군포제주특별자치도민회	2003	1,000	
	소계				517,520
해외	일본	관동지역	재일본관동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1961	43,000
		관서지역	관서제주특별자치도민협회	1994	80,000
		센다이	센다이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75	250
	미국	LA	재미남가주 제주특별자치도민회(LA)	1988	600
		뉴욕	재미제주특별자치도민회(NY)	1978	500
		시카고	시카고제주도민회	1987	300
		워싱턴	재미워싱턴지구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91	400
		미시간	미시간제주도민회	1988	100
		아틀란타	아틀란타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93	100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제주특별자치도민회	1996	50
	중국	상해	상해제주특별자치도민회	2003	50
		호주	호주제주특별자치도민회	2007	?
		남미	남미제주특별자치도민회	2009	?
소계				125,350	
합계				642,870	

자료 :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http://people.jeu.go.kr/contents/index.php?mid=0201>) 및 김현철(2008a: 61-62) 참조 작성.

제주에게 재외도민은 다른 지역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각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주지 하듯이, 제주는 지역 차원에서 국내외 출향인사들로 조직된 지역별 재외도민회를 연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국외 재외도민’, 즉 외국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인사들, 즉 ‘국내 재외도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체로 구축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⁴⁾ 또한 도내외 각계의 제주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제협의회’도 제주발전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재외도민을 남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재외도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의 평화협력과는 재외도민 화합 시책 추진, 하계 향토학교 운영지원,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탐라영재관 운영 및 지도·점검관리, 재외도민 호적민원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는 ‘재외도민계’를 두고 있다.⁵⁾ 또 2008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도 있다(김현철, 2008b).⁶⁾ 민간 부문에서의 재외도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제주상공회의소가 처음으로 주최한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이른바 ‘제상(濟商)대회’가 이러한 인식의 단초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 대회는 국내 최초의 제주판 세계한상대회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언론의 이목을 끌고 있다(제주상공회의소, 2010).

2.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필요성

세계화와 지방화가 상호 교차하는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에 세계 각국의 지방과 도시들은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행위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입부터 제주도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6년 특별자치도 이외에도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빛나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2011년 세계7대 자연결관 선정 등은 제주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거나 갖춰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재외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http://people.jeu.go.kr/>) 참조.

5)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u.go.kr/contents/depart.php?depart=38&siluk=11&mid=03>) 참조.

6)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외도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과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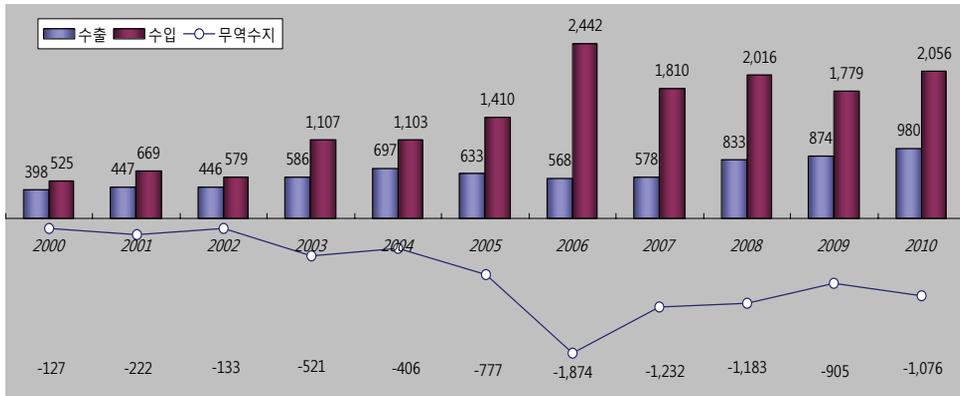
그러나 글로벌 무대를 향해 도약해야 할 제주는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여전히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⁷⁾ 첫째,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력은 국제교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한 2002년 이후 제주의 국제교류는 그 이전에 비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인다. 1986년 이래로 2008년 3월까지 자매결연도시는 7개국 15개 도시, 우호도시 협약은 5개국 11개 도시와 체결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02년 이후 체결된 자매결연 도시는 2003년과 2004년 각각 1개 도시와 2007년 1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2003년, 2006년, 2007년 각각 1개 도시이다. 오히려 국제교류에 대해 과거보다 더 소극적인 듯하다.

둘째, 외국 지방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국제협력 역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아직은 부족한 듯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3월 현재 총 7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고, 1992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한 ‘한일해협지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7개의 국제기구 중 국제자유도시 천명 이후 가입한 국제기구가 4개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활발하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셋째, 국제통상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교역량 면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 실적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림 2>에서처럼, 2000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무역수지 적자 폭은 더 커져 오다 2009년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넷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 기업들로부터 8개 사업에 2조 6,697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 2008).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으나 사업 투자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는 25% 내외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뒷걸음질 치는 중앙정부 지원, 미약한 내부 역량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유치한 자본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더욱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한 제주에게 50만 재외도민은 제주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7) 이하의 논의는 고경민(2008: 125-127)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을 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지역 수출입 통계(검색일: 2011. 11. 10).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입 실적(단위: 10만\$)

현재로서도 국내외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사업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네트워크 중에서 국외 재외도민 네트워크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 거주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외 재외도민에 비해 훨씬 네트워크 구축도 용이할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재외도민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통해 1%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100만 제주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세방화의 파고를 타고 넘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IV.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의 새로운 시도: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1. 대회의 개요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는 세계한상대회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제상대회’(濟商大會)로도 지칭되었다. 이 대회는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내의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제주인들이 좋은 두뇌와 경제력을 합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상대회는 100만 제주인 시대를 열기 위한 지구촌 제주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제주의 소리』, 2009/08/04 및 2009/07/21).

2009년 6월부터 계획된 제상대회는 제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7월 말 재정경제인 간담회 및 재일본(도쿄, 오사카) 경제인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재외도민단체의 협조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9월에는 고문 36명과 조직위원 218명을 위촉하고 ‘제1차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서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 도민회장들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한 가운데 ‘서울지역 조직위’도 출범시켰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11월 27일 해외 및 도외 상공인 250여 명과 도내 상공인 350여 명 등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제1회 제상대회는 도내외 상공인들의 스피치와 도내 주요 기관의 비즈니스 세션, 그리고 고용포럼, 상공인 아고라, 영비즈니스포럼, 골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주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졌으며, 대회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제주의 미래와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기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29일 폐막되었다.

제상대회는 당초부터 일회성 행사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로 제주 상공인들의 역량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례화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동의했다. 그에 따라 ‘제2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는 2010년 9월 17~19일 3일 동안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의 상공인 100여명 등 해외 및 도내외 상공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2회 제상대회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당신이 제주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지난 대회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더욱 체계화하고, 제주지역 기업인들이 국내외 지역으로의 본격 진출을 위한 인적 교두보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상공인들간 상호 투자기회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보강되었다. 제2회 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금융포럼, IT포럼, BT포럼, 해외상공인포럼, 영 비즈니스 리더포럼, 제주상공인 아고라, 제주투자기업포럼, 투자유치설명회 등 모두 8개 세션이 운영되었다(『연합뉴스』, 2010/09/17). 또한 지역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전시회를 통한 판로 개척 및 확대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제1회 대회에 참가했던 일본의 동경과 대판, 중국의 상해 외에도 미주, 중남미, 구주,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주출신 상공인에게까지 참가 규모를 확대해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제3회 대회는 당초 “민선 5기 제주도정의최대 목표인 수출1조원 시대를 건인하기 위해 ‘지역 향토특산물 박람회’를 부대행사로 함께 열어 제주지역 경제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많

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는 2011년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⁸⁾

2. 대회 추진 배경

그동안 재외제주도민 네트워크의 구축은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져 왔다. 이미 2000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100만 제주인의 결속을 통한 제주 발전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고, 제주국제협의회에서도 같은 해 『새천년, 새 제주: 백만 제주인의 힘과 대응전략』이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해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연구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2009년 11월 개최된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적 작업은 없었다.

2009년 6월 계획부터 11월 개최까지 5~6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제상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데는 대회의 추진 주체인 제주상의와 조직위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추진 주체는 어떤 배경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이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을까? 언론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은 재외도민과 제주의 관계에 대한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의지가 대회 추진의 주요한 배경의 하나였다. 주지하듯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제주는 재외도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⁹⁾ 그러나 그동안 재외도민의 제주에 대한 기여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에 다소 무관심했고, 그러다보니 제주와 재외도민, 특히 일본 동포사회의 관계는 후자의 전자에 대한 일방적 기여를 하는 관계로 굳어졌다는 것이 대회 주최 측의 인식이었다.¹⁰⁾ 이러한 양자 관계의 관행과 통념을 깨지 않고서는 재외도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당위성 차원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자기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 전액을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제주상의 측에서 부담함으로써 제1회 제상대회 개최 취지의 순수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대회 추진의 또 다른 배경으로 제주발전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발전경로의 모색을

8)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jejucci.korcham.net/index.html>)

9) 제주 재일동포들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는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155-177)와 고광명·진관훈(2006)을 참조할 것.

10) 현승탁 회장의 『제주의 소리』와 인터뷰 참조(『제주의 소리』, 2009/08/02).

들 수 있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 7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가시적인 발전의 성과는 찾기 어려웠다. 2000년대 이후 제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추진해 왔으나 취약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보다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 내부에서는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내용, 방식, 속도 등을 둘러싸고 번번이 갈등에 휩싸이고, 이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역량이 미흡한 결과 계획 대비 성과는 미미했다. 바로 이러한 제주발전의 한계를 ‘밖’에서, 즉 재외도민에서 찾으려고 했던 데서 제상대회 추진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3. 대회의 합의

제상대회는 정례회의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제주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선불리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기 시작한 제1, 2회 제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정례회에 합의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1, 2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제3회 대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정례회에 실패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것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없다. 이외에도 제상대회가 갖는 의미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00만 제주인’의 상징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다는 점이다. 사실상 그동안의 ‘100만 제주인’은 재외도민을 포괄하는 글로벌 제주인을 상징하는 레토릭의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 및 국내 각지의 재외도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행사는 거의 없었다. 한라문화제 때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의 임원단이 참가하거나 재외도민 자녀들의 향토 학교 참가 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제주의 소리』, 2009/08/04). 물론 세계 각지의 모든 도민회에서 빠짐없이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요 지역의 도민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100만 제주인’의 상징적 실체는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확인과 함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상황 협력 체제의 구축을 통해 제주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대노력을 통해 상공인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 제주인 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제상대회는 시종일관 민간의 주도 하에 계획추진되었고, 여기에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제주상회가 계획하고 참가자들의 항공료(자비 부담)를 제외한 체재비 및 행사경비 일체를 직접 부담했다는 데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지 재원의 출처가 다른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대회와 다르다는 의미를 크게 넘어선다. 비록 제주상회라는 민간의 한 조직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제상대회의 필요성을 가장 실감하는 제주 경제행위의 주체들의 모임이 이런 대회를 추진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의미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의미를 보다 크게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례화도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공공부문을 배제한 것도 아니었다. 대회 주최는 제주상회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많은 기관이 참여했고, 또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공동 주최일 수도 있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제주의 소리』, 2009/09/05). 이와 같은 제주인 네트워크의 토대 구축은 현재의 제상대회가 상공인 대회라는 특정 계층으로 제한된 대회가 아니라 범세계 제주인대회로 성장할 가능성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상대회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역단위에서 추진된 글로벌 상공인 대회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세계한상대회는 한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민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단위의 대회로서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상대회는 제주인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근간으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회이다. 이런 대회는 전국적으로도 최초라고 할 수 있다(『제주의 소리』, 2009/11/28). 이것은 그만큼 제주인의 끈끈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한 재외도민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그리고 제주발전에 대한 절박함이 클수록 정례화된 대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나아가 이 대회가 그 토대를 굳건히 하게 된다면 글로벌 제주 상공인 대회라는 제한된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의 제주인들이 하나로 뭉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V.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방향

재외제주도민과 제주도민의 역량을 연계결집시켜 나가는 것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임이 제3회 제주글로벌상공인대회의 취소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 그동안 특별자치도 차원의 관련 연구가 있었고 사회적 요구도 지속되었음에도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지난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감소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 목표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그러한 네트워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1. 새로운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에서 정체성은 도내외 제주인들의 유대와 결합을 촉진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재외도민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단초를 ‘재외도민’이라는 개념의 일상적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재외도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지방은 많지 않다. 경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한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사용의 사례는 사실상 제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¹⁾ 뿐만 아니라 제주인들의 용법에서 재외도민은 단지 제주출신 재외동포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고향을 떠난 제주인, 즉 출향 제주인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재외도민이고, 여기에는 국내 재외도민도 포함된다. 물론 다른 지역의 경우도 향우회나 도민회 등과 같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의 각종 지역연고 모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주의 국내 재외도민 개념이 특별하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방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외도민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이들까지도 명실상부한 재외도민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제주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제주발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제주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11) ‘재외도민’을 키워드로 네이버나 구글 등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쓰인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검색 결과가 제주와 관련된 콘텐츠들이었다.

지적되는 특징들도 제주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순응과 저항’이 먼저 거론된다. 순응의 정체성은 “정치·경제 및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고, 저항의 정체성은 “수탈과 억압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김형원, 2001: 216)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배타성 역시 제주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지적되곤 한다. 배타성은 고립된 섬에서 외지인에 대해 가졌던 경계심이나 거리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의미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많다. 가족주의 문화 속에서도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독립심이나 상부상조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 강인함과 검소함 등은 제주인을 상징하는 또 다른 정체성의 특징들이다.

미래의 제주 발전을 예비할 때, 그리고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제주인의 전통적인 정체성은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라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은 순응과 저항이라는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응전으로는 제주인으로서의 자존을 지키면서 제주도를 선진 복지사회로 발전시킬 수는 없”(김형원, 2001: 222)을 것이라는 지적은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주인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한 지적도 있다.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의 기조강연에서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그간 제주가 정체성에 대한 지나치게 강조로 발전의 기회를 다수 놓쳐왔다”며 “제주의 폐쇄성이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반하며 자멸을 자초할 수 있다”(전윤철, 2009)고 우려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주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덕목으로 개방성, 국제성, 네트워크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개방성’과 관련하여 “21세기는 자주독립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도 외부에 대한 개방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주독립성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면 자기를 상실하게 되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갖지 못한다면 큰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신용하, 2009)면서 조화로운 자주성과 개방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기반으로서 제주의 정체성은 일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교차하는 지점, 즉 세방화의 맥락 속에서 구축되어야 하는 네트워크이다. 특히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전통적인 제주의 정체성은 보다 개방적인 특성으로 세계화에 친화적인 정체성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체성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의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은 지방화의 맥락 속에서 제주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화에 친화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따라서 새로운 제주와 제주인의 정체성 정립 차원에서 기획적 정체성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 갈 것인가가 향후 제주 정체성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간 연계 및 상호작용 강화

현재 제주인 네트워크는 ‘도민회’ 형태로 국내외에 산재해 있다. 국내외에 각각 14개의 도민회가 있고, 이미 1996년 10월 이들 지역 및 국가별 도민회들이 연합하여 협의회 성격의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라는 단체를 결성했다.¹²⁾ 이런 재외도민의 조직화 측면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국가별 조직들이 설립되어 있고, 이런 단위 조직들을 바탕으로 연합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네트워크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망이라는 공간적 개념, 즉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이라는 관계의 형성, 즉 행위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 네트워크가 아무리 잘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조직적으로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야 하지만,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 협력, 연대와 같은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은 도민회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조직들의 상호 연계와 통합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연계와 통합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소통, 협력, 연대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는 조직화된 도민회의 연계와 통합의 틀 위에서 제주 출신 상공인들 간의 공감대를 자극하고 형성함으로써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협력, 연대를 위한 역동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조직적 측면만이 아니라 행위적 측면, 즉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 협력, 연대의 동기를 유발하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내외 제주인들 사이에 역동적인 네트워킹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공부문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재외도민들 스스로 지역 및 국가별 도민회를 구축하고 연합회를 조직했으며, 이를 근간으로 제주상회가 중심이 되어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행정적으로 재외도민을 지원하거나 초청하는 사업, 그리고 해외 제주인들을 DB화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들을 네트워크화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위로부터의 네트워크화가 네트워크의 주체인 재외동포와 민간부문, 국내외 기업 등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으로 나

12) 앞의 <표 1> 참조

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이미 새로운 통치방식으로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나 거버넌스(governance) 등과 같은 새로운 주제가 된지 오래이다. 이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부문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 또는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로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이다. 외교통상부의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외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코리아넷(<http://www.korean.net>) 사이트를 개설했고, 2009년에는 ‘재외동포와 하나 되는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단일창구 통합접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른바 ‘글로벌 싱글 윈도우’(Global Single Window) 서비스 구현 사업을 시작했다(재외동포재단, 2010: 1). 이 사업은 2009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기반구축, 고도화, 안정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계획되었다. 제주의 경우도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각의 지역 및 국가별 도민회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아직까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통, 협력, 연대를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제주민 네트워크의 구축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그동안 해외제주민에 관해 축적된 연구 성과와 민간 부문에서의 네트워크 사업의 실천적 경험을 통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글로벌 제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외 제주재외도민 네트워크는 국가적 사업에 의존하고, 국내 재외도민 네트워크 구축은 제주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네트워크 사업과 병행하여 국내 재외도민을 연계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사이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3. 상호이익 기반 네트워킹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은 모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였으며, 이런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들 모두가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국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재외동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이주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주민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재외동포가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아니라 모국이 재외동포의 권익을 옹호해 주어야 할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타향살이에 지친 재외동포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보거나 일방적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는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인 동시에 이주국 사회에서의 성공적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양면성, 즉 ‘성공한’ 재외동포와 ‘실패한’ 재외동포가 상존한다는 점은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바로 여기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는 출향인사들의 제주발전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의 성공과 발전을 위한 제주의 관심과 보호이다. 이것이 바로 재외도민과 제주의 호혜적 혜택, 즉 상호 이익을 목표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¹³⁾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취약한 자체 재정과 부족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미약한 내생적 발전 역량 등으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정서적 유대만으로 재외도민들로부터 일방적인 수혜만 받겠다고 인식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은 물론 지속 가능성조차 담보되기 어렵다.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이 제주사회는 물론 재외도민사회에도 호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면,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의 폐막에 앞선 ‘제주의 미래와 경제 활력을 위한 글로벌 제주상공인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제주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제주 상공인들이 신뢰에 기초해 상호 협력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의 기회를 확대해 제주상공인의 역량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세계경제 속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미래 성장의 핵심인 청년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인재교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세계로 나가기 위한 인적 교두보

13) 이 문제는 이미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회 주최 측이 가장 고심했던 바 중의 하나이다. 주최 측은 대회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본 방문에서 동포사회에 마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온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의 제주사회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참가자들의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 전액을 주최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러한 진심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를 확보”하고, “우수한 제주 특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홍보는 물론 판매 촉진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으로써 “글로벌 제주상공인 모두는 경쟁력 있는 제주를 건설하는 구심체로서 제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주역”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호 이익이란 비즈니스의 차원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익 또는 혜택이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물질적인 혜택, 예를 들면, 그동안 제주자치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다양한 재외도민 관련 사업들은 제주와 재외도민 간의 정서적 공감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재외도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2세, 3세대에게도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시켜 주는 것도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재외도민들 간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역시 비물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재외도민과 제주의 상호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상생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과 프로젝트들을 계획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 몇 가지 과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의 단초적 사례로 ‘재외도민’의 정책적 포용을 통한 제주 또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과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의 개최 및 이의 정례화 노력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인식과 민간부문의 구체적인 네트워크 사업 추진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사업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8차례를 개최한 세계한상대회로 대표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도 여전히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도민 네트워크 사업은 이제 막 발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제상대회를 모태로 하여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구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화인, 유대인, 인도인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산민족들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네트워크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적으로도 ‘세계한상대회’로 대표되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사업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외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재외도민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지 10여년¹⁴⁾이 지나고 있는 제주에서도 2009년 11월 개최된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를 계기로 또 다시 이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한 출발점으로서 재외도민 네트워크의 구축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와 조직적 연계만으로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가 재외도민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들과 공유된 인식을 어떻게 발전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조직적인 측면에서 재외도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작용의 네트워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등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건설적인 담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와 재외도민의 상승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현 단계에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의 성공 경험과 노력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교자본은 오늘날 약진하는 중국 경제의 밑거름 역할을 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도계 전문인력과 기업들이 오늘날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으며, 미국 각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가 이스라엘의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성공담이 한민족을 자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상대회에서 세계화상대회가 배우고 또 이것을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가 배워나가듯이, 수준과 차원을 달리하는 경험이라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동포 또는 재외도민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¹⁵⁾

다음으로,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목표와 지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국내외의 재외도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제주와 재외도민 및 재외도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주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14) 제주에서 재외도민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는 인구와 지리적 측면에서 제주의 한계를 넘어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100만 제주인' 담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장원석 외(2000) 및 재외제주도민협의회(2001)을 들 수 있다.

15) 전남대학교의 '세계화상문화연구단'(http://www.hansang.or.kr/)은 한인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3년도부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한인디아스포라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제주인의 정체성 및 동질성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은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실천적 사업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개념적 나열과 이들 간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했지만, 이는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의 목표와 지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주와 재외도민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당연히 실천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몇몇 주요 대회나 행사 위주로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세계 각국, 국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들을 제주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로 묶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공조 역시 불가결한 문제이다. 재외도민들의 제주와의 소통과 협력, 또는 투자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재외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다. 상공인 수준의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점차 법률·의료·농업 등 직능별 네트워크 구축 단계를 거쳐 제주인 일반의 네트워크로 확산시켜가는 전략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 덧붙여, 재외도민들에 대한 재내도민들의 올바른 인식도 글로벌 제주인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요소이다. 재내도민들이 재외도민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재외도민의 가치와 역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재외도민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동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민(2008),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국 지방외교: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 고광명, 진관훈(2006), “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사회과학연구』 제14집 1호, 148-181.
- 김항원(1998), 『제주도주민의 정체성』.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항원(2001), “세계화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 재외제주도민협의회 등 공편, 『새천년, 새제주: 백만 제주인의 힘과 대응전략』, 211-224. 서울: 오름.
- 김현철(2008a), “해외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주발전포럼』 제25호(봄), 61-65.
- 김현철(2008b), 『해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신용하(2009), “탐라인 정신의 특징과 제주경제상공인의 역할.”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기조강연, 11. 28.
-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3월.
-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장원석, 김창근, 강영훈, 양덕순(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 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 장원석 역(2008), Gabriel Sheffer 저, 『디아스포라의 정치학』. 제주: 온누리.
- 재외동포재단(2010),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1단계 구축 운영 사업』. 3월 17일.
<http://www.korean.net/hongbo/menu/data.jsp?MCD=01&pageID=075425> (검색일: 2010. 5. 15).
- 재외동포정책위원회(2009),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방향.” 9월.
- 재외제주도민협의회(2001), 『새천년, 새제주: 백만 제주인의 힘과 대응전략』,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11집. 서울: 오름.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의 100년 족적』,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윤철(2009), “세계화의 진행 과정과 우리 경제의 과제.”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기조강연, 11. 28.
- 정성호(2008), “코리아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네트워크로.” 『한국인구학』 제31권 제3호, 107-130.
- 제주상공회의소(2010), 『언론에 비친 제1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2008). “제주특별자치도, 동남아 화교자본 유치 교두보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국제자유도시본부, 알림마당).

제주특별자치도(2007), “자매-우호도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국제자유도시본부, 알림마당).

Choi, Inbom(2003), “Korean Diaspora in the Making: Its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C. Fred Bergsten and Inbom Choi, eds.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Special Report 15, 9-29.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ohen, Robin(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0), “Migration Typologies.”

<http://www.iom.int/jahia/Jahia/about-migration/migration-management-foundations/terminology> (검색일: 2010. 5. 13).

